

# ‘아기호랑이’ 듬직한 2루수로 거듭나다



제대 후 김선빈과 ‘키스톤 콤비’ 활약  
개인 역대 최다 21홈런 ‘존재감’ 과시  
우승반지 이어 결혼반지까지 ‘결경사’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6) 6번 타자 안치홍

‘아기 호랑이’에서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듬직한 2루수가 된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다.

KIA의 ‘V11’ 전락에는 ‘예비역 키스톤 콤비’가 있었다. KIA 구단은 동반 군입대로 자리를 비운 안치홍과 김선빈의 복귀 시점에 맞춰 FA시장에 통 큰 투자를 하며 우승 도전을 향한 전력을 꾸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짜릿한 통합우승이었다.

2009년 프로야구 최연소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우승을 불렀던 당찬 신인은 예비역으로 돌아온 2017년에 다시 한번 우승 현장에서 서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팀에게도 기다리던 시즌이었고, 안치홍에게도 간절했던 2017시즌이었다.

안치홍이 KIA 선수로 돌아온 것은 지난 가을이었다. 안치홍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제대하자마자 팀에 합류해 타석에 섰다. 그러나 아쉬움이 가득했던 가을이었다. ‘가을잔치’를 노리던 팀의 막판 스피트를 위해 바빠 돌아왔지만 오른쪽 내전근 부상으로 이내 자리를 비워야 했다. 이후와 일드카드 결정전 무대에 서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성적은 아니었다.

‘진짜’ 복귀 시즌을 맞아 안치홍은 종교참 선수라는 책임감을 더해 독한 준비를 했다. 팀을 떠나있는 동안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인 ‘8번’을 임시 결번으로 지정해준 김기태 감독과도 정식으로 함께하는 첫 시즌이라서 각오는 남달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발이 좋지

못했다.

안치홍은 시범경기 도중 도루를 하다가 옆구리를 다치면서 개막전을 치르지 못했다.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자평을 하는 안치홍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 부분도 바로 부상이다.

안치홍은 “시범경기에서 옆구리를 다친 게 가장 아쉽다. 아프지 않았다면 더 뭘 수 있었을 것인데, 도루를 많이 못 했다. 20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하는 역할이라서 도루를 많이 못 한 게 가장 아쉽다”고 언급했다. 가장 아쉬웠던 도루, 가장 좋았던 것은 홈런이었다.

안치홍은 “무엇보다 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이 만족스럽다. 개인적으로는 20홈런을 친 게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안치홍은 올 시즌 21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2014시즌 18개를 넘어,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을 기록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진 홈런이라서 안치홍은 물론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치홍은 10월 2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생애 첫 20홈런을 날렸다. 그리고 이날 연타석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21개의 홈런을 남겼다. 두산 베어스가 1위 자리를 놓고 턱밑까지 추격해왔던 상황. 안치홍은 2009년 한국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홈런으로 팀 정규시즌 1위 확정엔 큰 기여를 했다.

안치홍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박수를 받는 선수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잊지 않았던 기부 활동은 올해도 계속됐다. 안치홍은 지난 1일 팬페스트 현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자신의 안타와 도루 깃수에 맞춰 적절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우승으로 마무리된 2017시즌, 안치홍은 또 다른 경사를 맞았다. 안치홍은 두 번째 우승 반지에 이어 오는 9일 결혼반지까지 낀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훌쩍 큰 안치홍은 이제 그라운드 밖에서도 한 가정을 이끌게 됐다.

안치홍은 “팬들의 응원에 소름 끼칠 정도였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책임이 더 커졌다. 몸 관리 잘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안치홍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사구	삼진
3~4월	21	75	0.347	14	26	7	0	2	14	1	4	1	8
5월	25	90	0.311	21	28	4	2	3	17	2	13	1	13
6월	24	97	0.361	22	35	6	0	5	19	1	9	2	10
7월	17	64	0.281	7	18	3	0	2	8	1	2	0	14
8월	20	69	0.261	11	18	3	0	2	10	2	8	0	14
9월이상	25	92	0.315	20	29	6	0	7	25	0	7	0	11

## KIA 코치진 개편...정희열 수석코치·박흥식 퓨처스 감독

정희열 코치 “감독-선수 가교 역할 잘 하겠다”

박흥식 감독 “소신껏 유망주 발견·육성 초점”

KIA 타이거즈가 정희열(49) 수석코치, 박흥식(54) 퓨처스 감독 체제로 코치진을 개편했다. KIA는 7일 정희열 퓨처스 감독을 수석코치로, 박흥식 타격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각각 선임했다. 앞서 조계현(52) 수석코치가 KIA의 신임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단행된 후속 조치다.

그동안 퓨처스리그에서 선수 육성에 힘썼던 정희열 신임 수석코치는 김기태(48) 감독을 보좌하며, 선수단과 코칭스

태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정 수석코치는 “그동안 보급장고에 있다가 야전으로 나가게 됐다”며 웃은 뒤 “감독님 잘 모시고 중간에서 순조롭게 가교 역할 잘 하겠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서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감독님이 세계 나가실 때는 부드럽게 옆에서 역할을 하고, 너무 부드럽게 나가시면 반대로 센 역할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팀이 우승했고, 좋은 전력에서 1군



정희열 코치



박흥식 감독

으로 왔다. 고생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박흥식 퓨처스 감독은 합평 KIA 헬런저스 필드에서 퓨처스 팀을 지휘하며, 유망주를 발굴과 육성에 담당하게 된다. 그는 넥센 2군 감독시절 신고선수 테스트를

하러 온 서견장을 발굴해 낸 인물이기도 하다.

타이거즈의 명가 재건을 위한 중임을 맡게 된 박 감독은 “3년을 (김기태 감독과) 같이 했고 서로 잘 아니까 어떻게 선수들을 가르치고 육성해야 하는지 잘 안다. 내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성 쪽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재미있을 것 같다”며 “반짝으로 끝나는 성적이 아니라 KIA가 강팀으로 가야 한다. 지금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고, 좋은 선수들이 있다. 소신껏 유망주를 발견하고 육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다. 즐겁고 보람된 일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돼서 기쁘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IOC, 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



## 안현수 “개인자격으로 출전”

전 종목 출전권 획득 러 쇼트트랙 대표팀 정상 훈련

빅토르 안(32·한국명 안현수)이 이끄는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선수들이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자격으로도 평창 무대를 밟고 싶다는 빅토르 안의 출전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빅토르 안을 비롯한 러시아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서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를 발표한 6일에도 러시아 대표팀 선수들은 자국 코치의 지시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훈련했다. 러시아 대표

팀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르 안은 “평창올림픽은 4년 동안 준비한 무대”라며 “코치님도 출전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에만 열중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이미 획득할 수 있는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모두 따냈다. 남자 500m, 1,000m, 1,500m에서 각각 3장을 얻었고, 계주 출전권도 획득했다. 여자 대표팀은 500m, 1,000m, 1,500m 각 2장, 계주 출전권을 따다. 각 종목 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러시아 선수들은 그동안 입었던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ISU는 올 시즌부터 각국 쇼트트랙 대표팀 유니폼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새기도록 했다. 러시아 대표팀은 유니폼을 새로 제작해 평창올림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러 평창패럴림픽 출전 여부 19일 투표

참가 허용 가능성 낮아

러시아와 평창이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회는 19일(한국시간) 러시아의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출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IPC 김성일 집행위원은 7일 “오는 19일 전화회의로 IPC 집행위원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투표로 러시아의 평창패럴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C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수대표 3명과 선출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평창패럴림픽 출전 허용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징계 사안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평창패럴림픽 참가 허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IPC는 도핑에 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 IPC는 러시아가 장애인 선수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공개되자 2016 리우 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출전권을 박탈했다.

중목별 국제경기단체단 판정에 맡기면서 사실상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던 IOC와 다른 모습이었다.

현재 상황도 러시아에 호의적이지 않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의 자격을 박탈한 뒤 재승인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패럴림픽 복귀를 설득할 만한 동력이 떨어진다.

러시아가 평창패럴림픽에서 빠질 경우, 순위 싸움과 흥행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C는 러시아의 패럴림픽 참가를 포함한 각종 사안을 정리한 뒤 오는 22일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주연 빠진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개막

2017-2018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대회의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이 7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막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무대의 전초전 격인 대회지만 남녀 싱글 디펜딩 챔피언인 하뉴 유히루(일본)와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출중이 빠져 피겨 팬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대회가 됐다.

이날 오후 쇼트 프로그램 경기가 치러지는 남자 싱글에서는 미국의 네이션 천, 일본 우노 쇼마, 러시아의 미하일 콜라다 등 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우승자인 하뉴는 그랑프리 4차 대회 연습 도중 발목을 다쳐 기권하면서 파이널 출전이 좌절됐다.

하뉴 외에 지난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4위와 5위를 차지한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와 패트릭 찬(캐나다)도 이번 시즌 파이널에선 모습을 볼 수 없다. 찬은 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4차 대회에 기권했고, 페르난데스는 상위 6명의 파이널 엔트리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여자 싱글에서도 익숙한 이름의 스타들이 많이 자리를 비웠다.

알리나 자기토프바(러시아), 케이틀린 오스먼드(캐나다),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 등 6명이 그랑프리 왕좌를 다툰다.

지난해 1~3위 메드베데바, 미야하라 사토코(일본), 안나 포고릴라야(러시아) 가운데에선 미야하라만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선다. /연합뉴스